



[금융] 하나금융 융합형 인재 육성 DT 유니버시티 출범 05



Economy

코스피	2181.87 (0.00)	코스닥	749.31 (0.00)
금리 (미국 3년)	0.894 (+0.008)	환율 (원/달러)	1207.10 (-11.60) (5일)

이재용, 구속 기로 삼성 '미래전략'도 선장없는 시계제로

이재용 부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위축 우려 경제위기 극복 삼성 역할론 부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가 '포스트 코로나'와 미중 무역분쟁의 줄타기 속에서 발빠른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감행할 주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업계에 직격탄이 불가피한 데다, 재계 전체적으로도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한 것.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 등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추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18조~19조원)가 부풀려진 것이라 시각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지난 5일 현재 43조9997억원이다. 국내 대표 바이오업체인 셀트리온의 34조6120억원보다 9조3877억원 많다. 결국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게 됐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4%를 보유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두 배 넘는 이익을 봤기 때문.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 거취와는 관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할 뿐 아

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투자 결정 등은 '오너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업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년간 복역 후 출소한 2018년부터야 비로소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에서 중국 등 신흥 시장 추격으로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4대 미래성장 사업'을 제시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하고 나선 것.

대표적인 게 반도체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한 '반도체 굴기' 선언으로 한국 주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우려되던 당시, 이 부회장은 전장 반도체 육성을 공식화했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반도체비전 2030'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코리아'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반도체 비전 2030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대대적으로 규제하면서, 삼성전자가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미국 TSMC와 기술 경쟁을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요구를 받는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한동안은 반도체 투자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사소한 결정 하나라도 적지 않은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전문경영자들이 책임을 감수하고 투자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서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이 OLED를 넘어서는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13조원 투자를 통한 승부수를 띄우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디스플레이 시장에 다시 한번 '초격차'에 나섰다. 이 부회장 부재하에 투자가 제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

/삼성전자

“아시아나 인수여부 27일까지 밝혀라”

채권단, HDC현산에 최후통첩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후통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HDC현산이 인수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자 마지막 시그널을 보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오는 27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여부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최종 거래 종결일(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인수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최대 연장은 6개월로 오는 12월 27일까지다.

◆HDC “기업결합심사 마무리부터” vs 채권단 “인수포기 절차”

앞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을 총 2조5000억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원에 사고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조1772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모두 지연됐다. 당초 HDC현대산업개발은 1차로 1조4665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2차로 나머지 710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4월 7일로 예정된 1차 유상증자 납입일부터 지난 4월30일로 예정된 구주인수일까지 미뤘다.



아시아나항공 사옥 /연합뉴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해외경쟁당국에 신청한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식매매거래와 신주인수계약의 선행조건 중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다.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면 산은의 자금 지원 규모와 시기에 따라 유상증자 날짜를 확정하겠다는 주장이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LG전자, 뉴욕 전광판에 '땡큐' 메시지

LG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LG전자는 미국 현지시간 4일부터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 미 국법인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땡큐(Thank You)'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뉴스

조선업, 카타르發 훈풍에 추가수주 기대

모잠비크 등 LNG선 발주 줄대기 초격차 기술력으로 수주확보 전망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빅 3가 카타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선 계약을 따내면서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추가 물량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조선 빅3가 최근 카타르에 100척이 넘는 LNG선을 수주한 비결은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는 LNG선의 초격차 전략으로 기술력에서 거리를 벌렸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와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초격차 기술에서 5년 가량 뒤쳐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조선 빅3는 '카타르 잭팟'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LNG선 수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잠비

크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LNG선 프로젝트들도 조금씩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국내 조선업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수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LNG선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조선소의 LNG선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는 모잠비크 에리아, 나이지리아 NLLNG T7, 러시아아틱LNG2 등이다. 모잠비크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최소 8척 이상의 LOI(계약의향서)를 받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에서는 12척의 LNG선의 발주가 올해 하반기 예상되고, 러시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추가 LNG선 수주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LNG프로젝트에서 발주되는 LNG선은 얼음을 깰 수 있는 쇠빙 LNG선이어서 기존 LNG선보다

가격이 1.6배가량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러시아의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ARCTIC(북극)LNG-2'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15척의 쇠빙 LNG선 외에 추가로 10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5척을 수주한 삼성중공업과 지난 2014년 러시아 쇠빙 LNG선 15척 수주를 싹쓸이한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추가 발주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조선해양은 모잠비크 에리아1의 16척 중 8척 이상의 구매의향서(LOI)를 받아둔 상황"이라며 "5월 수주한 나이지리아의 LNG선 12척(추정) 입찰도 하반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신조 시장은 검색과 관망이 지배 중"이라며 "하반기 신조 시장의 봉쇄 해제 여부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성문 기자 ysw@